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김효신^{1*}

¹청운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Stress of Family Caregivers Caring for Demented Elderly

Hyoshin Kim^{1*}

¹Department of Nursing,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의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 72명이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성, 연령, 거주지, 결혼상태, 동거가족수, 자녀수, 종교유무, 교육수준, 직업유무, 가계월수입, 치매노인과의 관계, 치매노인 수발년수, 치매노인수발로 인한 증상유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t-test, ANOVA, Scheffe test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는 동거가족수가 1인인 치매노인과 단둘이 사는 경우,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한 달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증상이 생긴 경우이었다.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자, 나이가 60-69세인 경우, 동거가족수가 1명으로 치매노인과 단둘이 사는 경우,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한 달 월수입이 100-299만원인 경우, 며느리와 아들인 경우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치매노인과 단둘이 사는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가계 월 수입이 적은 경우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이면서 관련요인이 되는 주요변수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홀로 돌보는 가정,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 가계 월 수입이 적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ind stress related factors to reduce stress level of family caregivers for demented elderly. Subjects were 72 family caregivers for demented elderly in Seoul and Gyunggi province. Stress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ccording to gender, age, residence, marital status, number of family members, number of children, religion, education level, occupation, monthly income, relation with the demented elderly, caring years of the demented elderly and symptom of family caregivers for demented elder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ress of family caregivers for demented elderly were significantly high in number of family members who live alone with demented elderly, education level with elementary school or below, monthly income with below 2,000,000 won, and the ones who have symptom by taking care of demented elderly. Second, stress related factors of family caregivers for the demented elderly were women, age between 60-69, number of family members that live alone with demented elderly, education level with elementary school or below, monthly income with between 1,000,000 - below 2,990,000 won, daughter-in-law and son of demented elderly. The family who live alone with demented elderly, family with low education level and low monthly income were important variables of family caregivers' stress for the demented elderly.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support for family who living alone with demented elderly, family with low education level and low monthly income can reduce the stress of family caregivers for the demented elderly.

Key Words : Family caregiver, Stress.

본 논문은 2010학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하에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 김효신(hskim@chungwoon.ac.kr)

접수일 10년 10월 29일

수정일 10년 12월 03일

게재확정일 10년 12월 17일

1.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높은 교육수준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결혼 및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에 따라 가족 부양구조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1].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치매, 당뇨병, 심장병 및 뇌졸중 등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 유병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가족들의 부양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2].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율은 약 8.58%로 약 45만 명이 치매노인으로 집계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의 약 9.74%, 2040년에는 약 11.21%가 치매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3].

치매는 65세 이후에는 나이가 5세씩 늘어날 때마다 유병율이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4].

특히 치매는 다른 장애와는 달리 인지 및 행동장애로 인해 24시간의 보호와 관리를 요하므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경험한다[5].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활동 제한을 비롯하여 긴장감, 부담감, 삶에 대한 회의, 원망, 불쾌감, 상실감, 좌절감, 불안, 분노, 적대감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6], 또한 신체적 측면의 만성적 피로와 수면부족, 정신·심리적인 측면의 우울감[7],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이 나타나고[8,9], 그 밖에도 치매노인으로 인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환자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된다고 호소하였다[10].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일이 가족에게만 책임지워졌을 때 이들 가족은 갈등상황에 빠지고 심하면 와해되는 상황에까지 처해질 수 있어[11]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논문이 적고 대부분 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차이를 유발하는 변수와 관련요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 특성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들은 치매의 두 번째 혹은 숨어 있는 희생자라고 할 만큼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2]. 김태순[13]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개인-사회적 활동 제한이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노인과 주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부담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ins 등[14]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만성피로, 분노, 우울증을 많이 경험하며 이 외에도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 취미의 상실,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 자신이 아플 것에 대한 걱정, 역할 수행의 어려움, 죄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Lezak[15]은 치매노인을 24시간 보호하게 되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절망 및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치매노인이 질병악화로 더욱 의존적이 되면 더 많은 우울과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George와 Gwyther[16]는 치매환자의 가족은 환자가 없는 가족보다 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고 정신성 약물의 사용정도가 높았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자신을 위한 취미와 휴식 시간이 아주 부족하다고 하였다.

2.2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 영향요인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수준, 사회 서비스 이용 등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나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연구결과들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성의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연구[17]도 있고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남성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결과도 있다. Zarit 등[18]은 수발인에 대한 장기적 조사에서 처음에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였지만 2년 후의 추적조사에서는 남성과 여성 수발인이 경험하는 부담감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유희진[19]은 심리 정서적 측면과 개인 사회 활동적 측면, 가족적 측면은 남자 주 수발자가 여자 주 수발자보다 수발부담을 더 많이 느꼈다고 하였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연령에 따른 스트레

스 역시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담이 많다는 연구[20,16]가 있는 반면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가족구성원이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는 연구[21]도 있어서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학력에 대해서도 역시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장덕민[22], 이은희[21]는 학력과 스트레스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유희진[19]은 학력이 낮을수록 치매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측면, 심리 정서적 측면, 개인 사회활동적 측면, 가족적 측면, 전체 수발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들은 많은 시간을 노인을 간호하는데 쓰게 되므로 시간적 부담 외에도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갖는다. 유세단[23]의 연구에 의하면 불안 초조가 57.8%, 만성피로가 56.6%로 많았고 소화불량이 39.8%, 우울증이 28.9%, 신경통이 25.3%, 심장질환이 18.1%, 건망증이 10.8% 순이었다.

Stommel 등[24]은 가족이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재정적 책임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치매노인을 돌볼 때 치료와 간호에 대한 재정적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들은 처방위주의 병원보다는 보호와 정보제공 위주의 서비스 이용에의 욕구가 높았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과 가족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대부분의 가족이 노인을 자체적으로 돌보고 있어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어려움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에 차이를 미치는 변수와 관련요인을 알아내는 것이다. 1년 이상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설문지 작성을 마친 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3 연구방법

3.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가족구성원은 며느리 23명, 배우자 23명, 아들 6명, 딸 20명이었다. 치매노인수발년수는 5년 이하가 50명, 6-15년이 15명, 16년 이상이 7명이었다.

3.3.2 스트레스 측정도구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 완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Green[25]이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경험하는 디스트레스, 당혹감, 부정적 감정의 양에서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38$ 이었다.

3.3.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12곳의 치매지원센터 중 4군데의 가족회원들의 협조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등의 관리자들과의 협조, 인터넷 및 유인물 홍보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들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 작성은 치매지원센터 가족회원들에게는 교육 및 물품지원 등을 위해 센터에 모이는 날이 있으므로 이 날을 미리 알아 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연구동의를 받고 설문지 작성을 하게 하였다. 치매센터 회원이 아닌 가족들에게는 자조그룹 모임을 하는 날 찾아가서 설문지 작성을 하게 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치매노인 가족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고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모이도록 하여 설문지 작성을 하게 하였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에는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설문지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2009년 8월에서 11월까지 시행되었다.

3.4 자료분석방법

총 7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3)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60명(83.33%), 남자가 12명(16.67%)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50-69세가 42명(58.34%)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는 서울이 60명(83.33%), 경기도가 12명(16.67%)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2명(2.78%), 기혼이 70명(97.22%)으로 대부분 기혼이었다. 동거가족수는 치매노인과 단둘이 사는 경우가 16명(22.22%), 2-4명인 경우가 47명(65.28%), 5-6명인 경우가 9명(12.50%)이었다. 자녀수는 1-3명인 경우가 61명(84.72%)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62명(86.11%), 없는 경우가 10명(13.89%)이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1명(15.29%), 중졸 및 고졸이 32명(44.44%), 대학이상이 29명(40.28%)이었다. 직업은 있는 경우가 20명(27.78%), 없는 경우가 52명(72.22%)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가계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18명(25.00%), 100~200만원 미만이 16명(22.22%), 200~300만원 미만이 15명(20.83%), 300만원 이상이 23명(31.94%)이었다. 치매노인과의 관계는 며느리인 경우가 23명(31.94%), 배우자가 23명(31.94%), 아들인 경우가 6명(8.33%), 딸인 경우가 20명(27.78%)이었다. 치매노인 수발년수는 5년 이하가 50명(69.44%), 6-15년인 경우가 15명(20.83%), 16년 이상인 경우는 7명(9.72%)으로 장기간 치매노인을 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치매노인 수발로 인해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63명(87.50%), 증상이 없는 경우는 9명(12.50%)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표1].

4.2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성, 연령, 거주지, 결혼상태, 동거가족수, 자녀수, 종교, 교육수준, 직업유무, 가계월수입, 치매노인과의 관계, 치매노인 수발년수,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증상차이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t-test, ANOVA,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는 동거가족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280$, $p=0.007$), 사후검정 결과 동거가족수가 1인 즉 치매노인과 단둘이 사는 경

우가 동거가족이 2-4명인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에서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370$, $p=0.040$), 사후검정 결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중졸 및 고졸인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월수입에 따른 스트레스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300$, $p=0.008$), 사후검정 결과 한 달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증상이 생긴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t=2.160$, $p=0.034$) [표2].

4.3 치매노인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치매노인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 연령, 거주지, 결혼상태, 동거가족수, 자녀수, 종교, 교육수준, 직업유무, 가계월수입, 치매노인과의 관계, 치매노인 수발년수,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증상을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 특성에서 여자인 경우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낮았으며($\beta=-0.638$, $p<0.01$), 나이는 60-69세($\beta=0.472$, $p<0.05$)에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 가족구성원이 1명으로 치매노인과 단둘이 사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beta=0.463$, $p<0.05$). 또한 교육정도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았으며($\beta=0.365$, $p<0.05$), 가계수입이 100-199만원($\beta=0.314$, $p<0.05$)인 경우에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노인과의 관계에서는 며느리($\beta=0.320$, $p<0.05$)인 경우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아들($\beta=-0.418$, $p<0.01$)인 경우는 딸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낮았다. 모형의 설명력은 60.5%로 상당히 높았다 [표3].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72)

일반적 특성	범주	빈도 (%)
성	여자	60(83.33)
	남자	12(16.67)
연령	40세 이하	3(4.17)
	40-49	13(18.06)
	50-59	21(29.17)
	60-69	21(29.17)
	70-79	7(9.72)
	80세 이상	7(9.72)
거주지	서울	60(83.33)
	경기도	12(16.67)
결혼상태	미혼	2(2.78)
	기혼	70(97.22)
동거가족수	1명	16(22.22)
	2-4명	47(65.28)
	5-6명	9(12.50)
자녀수	0	5(6.94)
	1-3명	61(84.72)
	4명 이상	6(8.33)
종교	있음	62(86.11)
	없음	10(13.89)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15.29)
	중졸 및 고졸	32(44.44)
	대학이상	29(40.28)
직업	있음	20(27.78)
	없음	52(72.22)
가계월수입	100만원 미만	18(25.00)
	100~200만원 미만	16(22.22)
	200~300만원 미만	15(20.83)
	300만원 이상	23(31.94)
치매노인과의 관계	며느리	23(31.94)
	배우자	23(31.94)
	아들	6(8.33)
	딸	20(27.78)
치매노인 수발년수	5년 이하	50(69.44)
	6-15년	15(20.83)
	16년 이상	7(9.72)
치매노인수발로 인한 증상	있음	63(87.50)
	없음	9(12.50)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빈도=72)

일반적 특성	범주	빈도 (%)	t or F	p	Scheffe test
성	여성	60(83.33)	-1.500	0.137	
	남성	12(16.67)			
연령	40세 이하	3(4.17)	0.430	0.825	
	40-49	13(18.06)			
	50-59	21(29.17)			
	60-69	21(29.17)			
	70-79	7(9.72)			
	80세 이상	7(9.72)			
거주지	서울	60(83.33)	1.510	0.135	
	경기도	12(16.67)			
결혼상태	미혼	2(2.78)	0.400	0.689	
	기혼	70(97.22)			
동거가족수	1명(a)	16(22.22)	5.280	0.007*	a>b(0.713)
	2-4명(b)	47(65.28)			
	5-6명(c)	9(12.50)			
자녀수	0	5(6.94)	0.130	0.882	
	1-3명	61(84.72)			
	4명 이상	6(8.33)			
종교	있음	62(86.11)	-0.700	0.483	
	없음	10(13.89)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이하(a)	11(15.29)	3.370	0.040*	a>b(0.698)
	중졸 및 고졸(b)	32(44.44)			
	대학이상(c)	29(40.28)			
직업	있음	20(27.78)	0.410	0.681	
	없음	52(72.22)			
가계 월 수입	100만원 미만(a)	18(25.00)	4.300	0.008*	a>d(0.744) b>d(0.606)
	100~200만원 미만(b)	16(22.22)			
	200~300만원 미만(c)	15(20.83)			
	300만원 이상(d)	23(31.94)			
치매노인과의 관계	며느리	23(31.94)	2.190	0.097	
	배우자	23(31.94)			
	아들	6(8.33)			
	딸	20(27.78)			
치매노인수발년수	5년 이하	50(69.44)	2.380	0.101	
	6-15년	15(20.83)			
	16년 이상	7(9.72)			
치매노인수발로 인한 증상	있음	63(87.50)	2.160	0.034*	
	없음	9(12.50)			

* p<0.05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빈도=72)

종속변수	독립 변수	β (s.e)	표준화 β	t	F	R^2
스트레스	성별				2.820**	0.605
	여자	-1.366(0.322)	-0.638	-4.250**		
	연령					
	40세미만	0.013(0.536)	0.003	0.020		
	40-49세	0.740(0.376)	0.357	1.970		
	50-59세	0.755(0.380)	0.430	1.990		
	60-69세	0.829(0.367)	0.472	2.260*		
	70-79세	0.380(0.420)	0.141	0.900		
	거주지					
	서울	0.500(0.263)	0.233	1.900		
	결혼상태					
	미혼	0.237(0.849)	0.049	0.280		
	동거가족수					
	1명	0.889(0.352)	0.463	2.530*		
	2-4명	0.102(0.277)	0.061	0.370		
	자녀수					
	자녀없음	-0.021(0.574)	-0.007	-0.040		
	1-3명	0.173(0.384)	0.078	0.450		
	종교					
	있다	-0.397(0.300)	-0.172	-1.320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이하	0.809(0.373)	0.365	2.170*		
	중졸-고졸	-0.083(0.217)	-0.051	-0.380		
	직업					
	직업이 있다	0.321(0.205)	0.180	1.570		
	가계 월 수입					
	100만원 미만	0.581(0.312)	0.315	1.860		
100-199만원	0.604(0.238)	0.314	2.530*			
200-299만원	0.316(0.254)	0.161	1.250			
치매노인과의 관계						
며느리	0.547(0.223)	0.320	2.450*			
배우자	-0.445(0.293)	-0.260	-1.520			
아들	-1.207(0.431)	-0.418	-2.800**			
치매노인 수발년수						
5년 이하	0.515(0.346)	0.297	1.490			
6-15년	0.602(0.414)	0.306	1.460			
치매노인수발로 인한 증상						
문제가 생김	0.224(0.277)	0.093	0.810			

* p<0.05

** p<0.01

5. 고찰 및 결론

치매는 발병 후 만성적으로 진행하여 악화되는 비가역성 질환이므로 부양하는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현과 전길양[26]은 치매를 전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질환 또는 세기의 질환이라고 하였으며, 장영애[27]는 치매가 두 명의 환자(치매노인과 주수발자)를 만들어 낸다고 할 만큼 치매노인부양의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와 관련요인을 찾아내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동거가족수가 1인으로 치매노인과 단둘이 사는 경우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관련요인에서도 유의한 변수이었는데 이는 치매가족의 스트레스가 친척 및 친구의 지지와 역상관계가 있다는 결과[28], 가족의 응집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연구들인 고정자[29], 고정자와 김갑숙[30], 전세경[31], Greenberg 등[32]의 연구, 가족지 지정도가 낮을 때 부양부담이 높다고 한 연구[33]와 같은 결과이다. 치매노인을 혼자서 수발해야 하는 경우 주위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다른 가족구성원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혼자서 노인을 돌보는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에 따라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중졸 및 고졸인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관련요인에서도 유의한 변수이었는데 고학력인 경우에는 저학력보다 더 많은 대처자원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에 적응하므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 월수입에서는 사후검정 결과 가계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 한 달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가계 월수입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관련요인에서도 유의한 변수이었다. 이는 가구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일 때 사회경제적, 신체적 부양부담이 300만원 이상일 때 높았다는 연구[17],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치매가족의 누적스트레스는 역상관계가 있었다는 연구[28]와 같은 결과이며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증상이 생긴 경우에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 결과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고 한 연구[33]와 같은 결과이다. 또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건강 문제는 서로 부적관계를 가진다는 연구[34], 부양부담이 증가할수록 부양자의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35]와 유사한 결과이다.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부양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손상을 경험하므로 치매노인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치매노인 가족구성원이 남자인 경우 여자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 정서적 측면과 개인 사회 활동적 측면, 가족적 측면에서 남자 주 수발자가 여자 주 수발자보다 수발부담을 더 많이 느꼈다고 한 연구와 유사하다[19].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남성 대상자들이 치매노인을 직접 돌보고 있으며 오랜 기간 치매노인으로 인해 가족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수에서 며느리인 경우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36]와 같은 결과이다. 치매노인의 1차적 부양자가 며느리[37]인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서와 달리 며느리의 부양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들인 경우 스트레스가 딸보다 낮게 나온 것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연구[26]와 유사하며 아들인 경우 부모에 대한 책임의식을 딸보다 높게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치매노인과 단둘이 생활하는 동거가족수가 1인인 경우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이면서 관련요인인 주요변수로 나타났다. 혼자서 치매노인을 모시면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매노인과 단둘이 생활하는 가정에 대해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 또는 사회적 지지체계 등을 통한 관심과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로 낮은 경우, 가족 월수입이 적은 경우 역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이면서 관련요인인 주요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치매노인 가정에 대한 지원, 가족 월수입이 낮은 가정에 대한 지원 역시 치매노인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치매노인과 단둘이 사는 가정으로 동거가

족수가 1명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가계 월 수입이 적은 경우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이면서 관련요인이 되는 주요 변수이었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홀로 돌보는 가정,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 가계 월 수입이 적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1] 박창제, “치매 노인의 비공식 보호비용에 관한 평가”,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 Parks, S. M., Novielli, K. D., “A practical guide to caring for caregivers”. American Family Physician, Vol.62, pp. 2613-2620, 2000.
- [3]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9.
- [4] Eisdorfer C., “Families in disrtress: Caring is more than loving”, Psychiatric Annals, Vol.26, pp. 285-288, 1996.
- [5] 홍여신, 이선자, 박현애, 조남옥, 오진주, “노인성 치매 환자 가족 간호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25권 제1호, pp. 45-60, 1995.
- [6] Knight, B. G., Lutzky, S. M., Macofsky-Urban F., “A mata-analytic review of interventions for caregiver distres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Gerontologist, Vol.33, No.2, pp. 240-248, 1993.
- [7] Gwyther, L. P., George, L. K., “Caregivers for dementia patient: Complex determinants of well-being and burden”. The Gerontologist, Vol.26, pp. 245-247, 1986.
- [8] 홍여신, 이선자, 박현애, 조남옥, 오진주, “노인성 치매 발생요인과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제24권, 제3호, pp. 448-460, 1994.
- [9] Sporinger, D., Brubaker, T. H., “Family caregivers and dependent elderly : minimizing stress and maximizing undependence”,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1984.
- [10] Chenoweth, B., Spencer B., “Dementia: The experience of family caregivers”.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Vol.21, 1986.
- [11] 김혜숙,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과 사회복지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2] Fengler, A. P., Goodrich, N., “Wives of elderly disabled men : the hidden patients”, The Gerontologist, Vol.19, No.2, pp. 175-183, 1979.
- [13] 김태순, “치매노인의 기능장애 유형과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14] Robins, P. V., Mace, N. L., Lucas, M., “The impact of dementia on the famil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48, pp. 333-335, 1993.
- [15] Lezak, M. D., “Living with the characterlogically altered brain injured patient”,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Vol.39, No.7, pp. 592-598, 1978.
- [16] George, L. K., Gwyther, L. P., “Caregiver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s, vol. 26, No.3, pp. 253-259, 1990.
- [17] 정혜원, “입원한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성인자녀 부양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18] Zarit, S. H., Todd, P. A., Zarit, J. M., “Subjective burden of husbands and wives as caregivers : a longitudinal study”, The Gerontologists, vol. 26, No.3, pp. 260-266, 1986.
- [19] 유희진, “치매노인 주수발자의 사회적 지지와 수발부담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0] 송현애,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부양자원과 부양스트레스 인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pp.115-124, 1994.
- [21] 이은희,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부담 감소를 위한 사회사업적 개입 전략”,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22] 장덕민,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 정상노인 부양자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23] 유세단,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24] Stommel, M., “Depression as an overriding variable explaining caregiver burden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 2, pp. 81-102, 1990.
- [25] Green J. G., “Measuring behavioral disturbance of elderly demented patients in the community and its effects on relatives: a factor analytic study”, Age & Aging, Vol.11, pp. 121-126, 1982.
- [26] 김태현, 전길양,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상황과 적응자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4호, pp. 145-160, 1996.
- [27] 장영애, “치매 노인 부양자를 위한 사회적 지지 집단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28] 서문경애, “치매노인 가족의 누적 스트레스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제25권, 제2호, pp. 195-209, 2005.
- [29] 고정자, “맞벌이 가족부부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제4호, pp. 97-116, 1994.
- [30] 고정자, 김갑숙, “가족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1호, pp. 65-78, 1996.
- [31] 전세경,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32] Greenberg J. S., Seltzer, M. M., Greenley R., “Aging parent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gratifications and frustrations of later-life caregiving”, The Gerontologist, Vol.33, No.4, pp. 542-550, 1993.
- [33] 이강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와 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8권, 제2호, pp. 384-398, 1999.
- [34] 서미혜, 오가실,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23권, pp. 467-486, 1993.
- [35] Pruchno, R. A., Resch, N. L., “Husband and wives as caregivers : Antecedents of depression and burden”. The Gerontologist, Vol.29, No.2, pp. 159-165, 1989.
- [36] 마정수, 김초강,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가족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2권, 제1호, pp. 83-110, 1995.
- [37] 권중돈, “치매노인 부양부담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 효 신(Hyoshin Kim)

[정회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0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치매, 비만